

# 5월 지나면 바로 '무더위'

### 광주기상청, 내주 평년 기온 이상...6월부터 '고온' 질병청, 오늘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올 여름에는 더위가 전년보다 더 빨리 찾아올 전망이다.  
6월부터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지방기상청 '1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 4주차(19-25일)는 기온이 평년(18.3-19.1도)보다 높을 확률이 40%, 비습할 확률이 40%로 예측됐다.  
5월 5주차(26일-6월 1일)부터는 이동성 고기압과 남서쪽 저기압의 영향으로 급격히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 기온이 평년(18.9-19.9도)보다 높을 확률이 50%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6월 2주차(6월 2-8일-평년 기온 20.0-20.8도)와 6월 3주차(6월 9-15일-평년 기온 20.9-21.7도)에도 모두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드러나면서 초여름 더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은 대부분의 주간에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평균 5-20mm)으로 예측됐지만, 고온 상태가 이어지면서 체감 더위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5월 4주차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5월 5주차부터 6월 3주차까지는 강수량이 비슷할 확률과 많을 확률이 각각 40%로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보다 5월 빠른 15일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 여름 고온 현상이 예년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체계는 전국 500여개 응급의료기관과 보건소, 시도 지자체가 참여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의 발생 상황을 매일 실시간으로 집계·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2025년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기상청과 협업해 개발한 '온열질환 예측 정보'를 시범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전국 및 17개 시도별 3일 단위로 최고 체감 온도와 최고 기온, 평균 상대습도 등 예보를 분석해 온열질환 발생 위험 등급을 4단계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질병청은 이 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이 온열질환에 선제 대응하고 지자체 폭염대책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2024년) 여름에는 해당 체계를 통해 총 3704명의 온열질환자가 보고됐으며, 이 중 34명이 숨졌다. 전체 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30.4%, 발생 장소는 실외(78.7%)가 실내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에 걸리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방치 시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어 사전 예방과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며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무더위 시작 이전부터 외출 전 기온 확인, 수분 섭취, 햇볕 차단, 무리한 야외활동 자제 등 예방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교사 3명 중 1명 "교직생활 불만족"

### '만족'은 2.4배 늘어난 32.7%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2년 전 '사이초 사건' 당시보단 개선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에 대한 '만족'(32.7%)과 '불만족'(32.3%) 응답률이 엇비슷하게 나왔다.  
2023년 설문 조사와 비교하면 만족한다는 답변이 13.2%에서 32.7%로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교직 생활 만족도에 대한 점수도 5점 만점에 2.9점을 주는 데 그쳤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율이 64.9%로 '그렇다'(8.9%)보다 현저히 높았다.  
교사 절반 이상(58.0%)은 최근 1년간 아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복수응답 가능)

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을 1순위로 꼽았다. '낮은 급여'(57.6%), '과도한 업무'(27.2%)가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교사 56.7%가 학생에게, 56.0%가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교사 23.3%가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4%,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4.0%에 불과했다.  
'교권 5법'이 통과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 96.9%는 '교육 정책 전반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95.8%는 '교육 정책 간 일관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정년까지 교직을 유지하겠나'는 질문에 교사 61.5%가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경제적 이유,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 과도한 행정 업무, 교권 하락 등을 그 이유로 언급했다.

/연합뉴스



올바른 손씻기 방법 배우요 14일 광주시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열린 식중독 예방 올바른 손씻기 교실에서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손씻기와 뷰박스를 통해 손에 묻은 오염도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계엄군 '미니버스 학살' 주남마을

### 5.18 45주년, 여기는 꼭!

### 총격에 17명 사망·2명 암매장 마을 뒷산에 희생자 위령비 6월 12일 인권 문화제 개최

광주시 동구 지원동 주남마을은 광주와 화순을 잇는 주요 통로이자 너릿재터널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로,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이 주둔하며 광주로 들어오거나 나가려는 사람들을 무차별 사살했던 곳이다.  
'주남마을 미니버스 학살 사건'은 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광주시민 모두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1980년 5월 23일 오전 화순으로 향하던 미니버스에 계엄군이 총격을 가해 18명 중 15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계엄군은 남은 사람 3명 중 중상자 2명을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총살하고 암매장하기도 했다. 암매장된 시신은 사건 일주일 뒤 마을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주남마을 주민들은 30년 동안 아픔을 품고 살아오다, 5·18 30주년을 맞은 지난 2010년부터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주민들과 광주YMCA, 5·18기념재단 등이 힘을 합쳐 주남마을 뒷산에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위령비를 세운 것이다. 위령비는 계엄군에 살해 및 암매장당했던 두 청년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  
또한 마을 주민들은 마을 입구와 계엄군 주



둔지 등 곳곳에 '치유'를 상징하는 솟대를 세웠다. 마을 내 경로당에 역사관을 만들어 관련 자료를 수집해 두기도 했다.  
주남마을 버스정류장은 '버스 총격사건'을 형상화해 세운 노란색 버스 모양 조형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주민들은 주남마을에서 올해로 12회째 '기억이 니은이 인권 문화제'를 열고 있다. 축제 명칭의 '기억이 니은이'는 주남마을의 옛 지명인 지한면 녹두밭 웃머리를 기억하자는 뜻으로, '기억하라 녹두밭 웃머리'의 초성인 '기'와 '니'를 상징화해 만든 이름이다. 올해 행사는 오는 6월 12일에 진행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인정상품 모집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인정상품을 모집한다.  
'인정상품'으로 선정되면 박람회 종료 시까지 해당 상품에 섬박람회 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국내·외 관람객에게 섬박람회와 전남을 대표하는 우수 상품을 함께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전라남도 내 기업 제품으로 ▲전남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섬박람회 종료 시까지 통합상표 사용기간이 유효한 제품 ▲조직위원장이 인정하는 기타 우수상품이다.  
모집 품목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이며, 품목당 수수료는 50만 원이다. 신청 방법 등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개발공 비상임이사 공모

전남개발공사는 이사회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비상임이사 7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경영·행정·ESG ▲건설·안전·부동산 ▲법률 ▲주거·복지 ▲회계·세무 ▲에너지 ▲노동자 이사 등으로 각 분야별 1명을 선별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로, 문의는 개발공사 경영지원처로 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

알바 댄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SECURIT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소방보험협회  
FIRE AND DISASTER SAFETY AGENCY

손해보험협회  
KOREA AUTOMOBILE INSURANCE ASSOCIATION

IGFA 보험GA협회